‘不二’ 조각으로 종교 본령을 묻다



박상희 작가의 ‘피에타_不二’. 반가사유를 한 부처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은 대립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종교를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박상희 작가, ‘不二’ 개인전

예수를 안고 있는 부처상
대립 아닌 공존의 메시지
도끼 위 놓인 작은 불상서
‘殺佛殺祖’ 날선 정신 담겨
11월 25일까지 NEMO서

종교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담당해 온 유구한 역사이며 문화이다. 태고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경전이 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윤리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종교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부터 현대의 종교를 기반한 테러리즘까지 근본주의적 종교가 보여주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서 한 예술가는 의문을 던진다. “종교와 인간, 그리고 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각각 다르다는 그 신을 위해 서로 죽이고 희생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도발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리고 그 상상은 예수를 안고 있는 부처, 인간(혹은 예수)를 보듬는 관음 등으로 표현돼 나타난다. 이 같이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지향은 달라도 목표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불이(不二)’의 조형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박상희 작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NEMO에서 ‘불이(不二)’를 주제로 14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신의 역사·철학·종교·예술적 관점과 상상력을 투영해 낸 조형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사유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반가사유를 한 부처가 예수를 안고 있는 작품 ‘피에타_不二’와 도끼날 위에 작은 불상을 놓은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작가의 작품 ‘피에타_不二’의 경우 로마 산피에트로성당 입구에 위치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부처가 예수를 안았던, 예수가 부처에게 안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가지는 본령과 지향점은 하나다. 인간의 행복과 안녕이다.

박 작가는 “신이 만든 인간, 인간이 만든 신, 그 사이에서 인간의 갈등과 이념과 종교 간의 분쟁이 종식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서 “대립의 종교가 아닌 사랑하고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불교적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는 당나라 말기의 고승 임제의현의 법어인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떠오르게 한다.

부처와 조사라는 관념에 집착하면 현재를 망각해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내안의 부처’라는 또 다른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작가는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전시를 담당한 정형탁 큐레이터는 “박상희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단박에 들어온다”며 “종교(Religion)의 어원이 ‘이어주다(Relier)’에서 파생됐듯이 종교는 분리보다 연결, 이어짐을 전제로 한다. 작품은 이러한 경계, 구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02)6399-7459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작품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는 ‘미혹을 벗어나라’는 화두를 던진다.

BTN라디오 ‘울림’ 채널 방송 ‘START’

11월 1일부터… 혜민 스님 등 유명 MC 대거 참여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채널을 신설하는 등 확대·개편에 들어갔다.

BTN은 BTN불교라디오는 ‘울림’ 채널을 신설해 11월 1일부터 공식 첫 방송을 시작했다. ‘울림’ 채널은 다음세대를 위해 1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젊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청취자 간의 소통과 청취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불교라디오만의 특장점을 살렸다. 특히 국민 멘토 혜민 스님을 비롯해 자신만의 콘텐츠로 무장한 스님들이 대거 MC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혜민 스님은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금 오전 8시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클래식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진명 스님(前 조계종 문화부장)은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매주 월~금 오전 9시)’를, 어라 스님 만화로 유명한 지찬 스님과 효산 스님은 음악과 토크가 결합된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매주 토·일 오후 1시)’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매주 월~금 오전 7시) △도연 스님과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 (매주 월~금 오후 1시) △스토리 불교뉴스 (매주 토~일 낮 12시) △본격스님 토크쇼- 야.자.수(매주 토~일 오후 2시) △강민석의 잠시 동안을 위한 음악(매주 토~일 오후 3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인터넷 방송인 BTN불교라디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애플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울림’으로 검색해 다운받아 청취할 수 있다.

BTN불교라디오 관계자는 “BTN은 이번 BTN불교라디오의 ‘울림’ 채널 신설을 계기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음세대 포교활성화에 더욱 더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3270-3464~6 **신성민 기자**

佛寶 통도사 장엄세계를 만나다

노재학 작가, 11월 26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서 사진전

통도사 11개 전각 세부 촬영
3부에 나눠 40여 점 선보여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셔와 봉안한 천년 고찰, 양산 통도사. 불보사찰 통도사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재학 불교사진작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 한달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통도사의 장엄세계, 적멸의 빛’ 사진전을 개최한다.

‘통도사의 장엄세계, 적멸의 빛’ 사진전은 한 작가가 통도사를 10여 년 넘게 다니며 쌓은 두터운 시간의 내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노재학 작가가 찍은 통도사 장엄물 사진 40여 점이 1부 ‘신령과 생명력’, 2부 ‘예경과 공양의 빛’, 3부 ‘적멸의 빛’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전통사찰과 나무, 문화재 등 불교문화유산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한 시, 산문을 쓰고 있는 노 작가는 1년 365일 중 300여 일을 길에서 보낸다. 많은 사찰을 찾는 그가 가장 많이 찾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찰이 바로 통도사이다.



통도사 대웅전의 천정 세부 사진, 노재학 作

노 작가는 “불전건물에는 종교, 철학, 예술, 시대정신이 녹아 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 이상향에, 민족문화의 역량을 쏟아 부은 결정체”라며 “특히 양산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 장엄의 소재와 모티프를 집대성한 보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 작가는 “통도사 대웅전과 영산전, 약사전 등 11곳의 전각에 고도의 장엄이 돼 있다. 불전건물 자체가 장엄예술의 화폭이고 미술관이기에 이를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사진전 취지를 설명했다.

“10여 년간 통도사를 가고 또 가서, 통도사 가는 길이 내 삶에 윤이 날 정도로 드나들었습니다. 수백차례 통도사 불전장엄을 살피고 나서야 그 본질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055)382-1001 **노덕현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찾아가는 음악회

11월 20일 영등포 아트홀서

좋은 벗 풍경소리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함께 부르는 노래’를 개최한다. 매년 붓다콘서트와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공연을 주도해온 풍경소리가 준비한 기획공연으로, 조계종 문화부와 BTN불교TV가 후원한다.

올해 음악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합창단과 음악인을 초청해 공연이 이뤄진다.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봉화 청량사의 둥근소리 합창단, 당진 보덕사 관음합창단,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풍경소리의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의 특별공연,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 해금의 김나래, 승무의 김은선 등이 함께 출연해 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음악회가 꾸며질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풍경소리의 2016 찾아가는 음악회에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02)723-9836 **신성민 기자**

